

직계도



16세 덕함(德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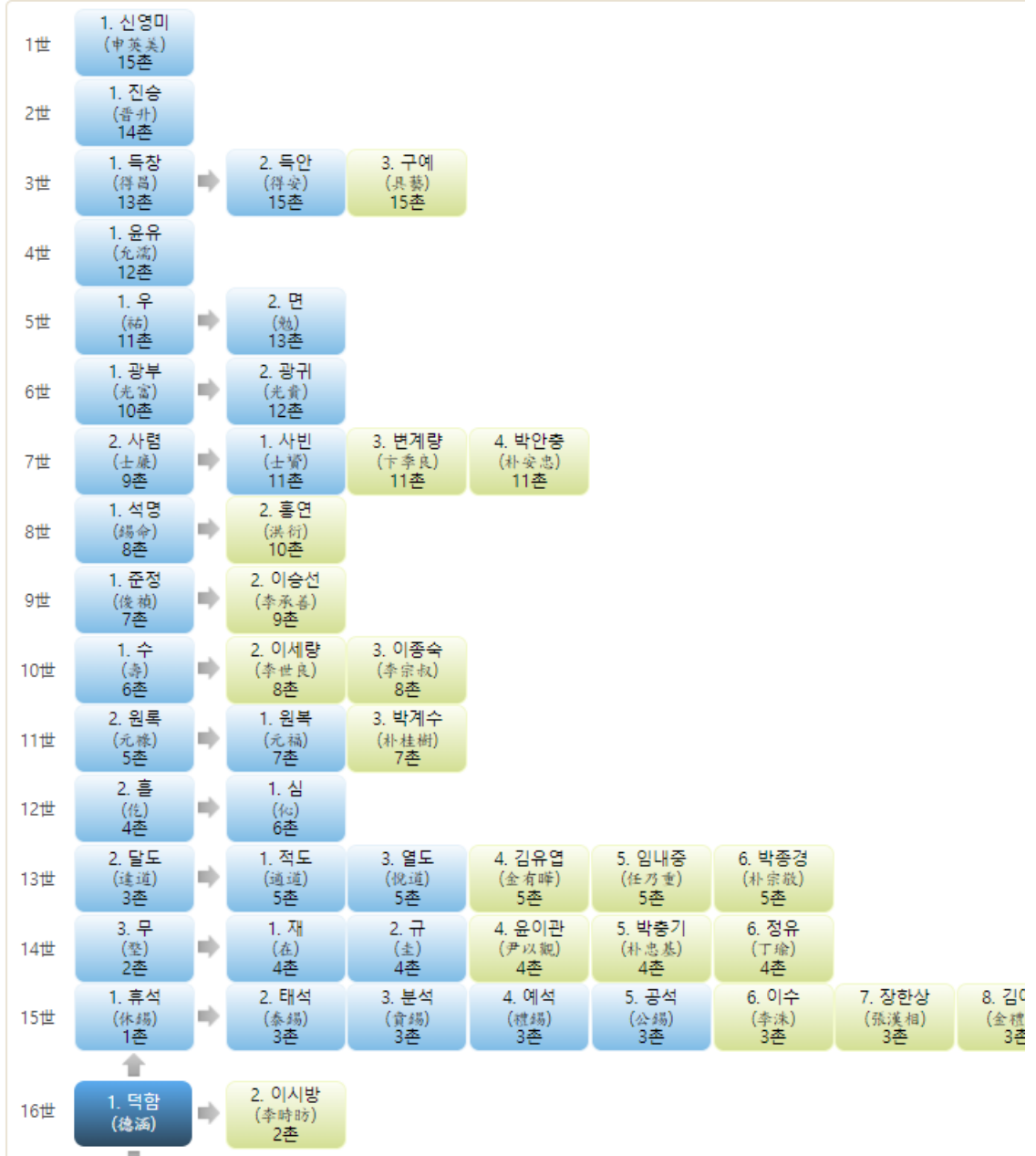
父: 휴석(休錫) 祖父: 무(整)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계도

8계도

촌수계산



15 세 장한상(張漢相) : 신덕함 고모부

父: 무(整) 祖父: 달도(達道)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 족보내용

字仲游 號龔瘖

肅宗朝甲子成均生員世稱三德文章七歲作寒食賦日忍火食捨今日有聲瘖橋六卷處變權衡二卷

孝宗丙申五月二十日生庚戌四月十九日卒享年七十五◎墓霞峴西坐

配宜人南陽洪氏丙申十二月十一日生丁丑三月二十四日卒◎墓佳音面德川里父通德郎叙猷監司德一曾孫

조선 숙종(1661~1720년 재임) 시대 과거(科擧) 시험에서 울릉도·독도 영토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대처하는 방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음을 보여주는 고문서(사진)가 최초로 발견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회는 14일 특위 부위원장 방문일(48) 변호사가 최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단법인 국한연구소 대구·경북지부에서 독도 관련 고문서를 발견했고, 분석을 의뢰받은 전문가가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고문서는 경북 의성지역 선비였던 신덕함(申德函.1656-1730)이 남긴 문집에 있는 '전책(殿策)' 형식의 글이다. A4 용지 크기인 이 고문서는 임금이 묻는 책문(策問)이 1장 반, 답하는 대책(對策)이 12장 반으로, 총 14장으로 돼 있다. 이 글은 숙종이 1693년 발생한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에 대해 과거 응시자들에게 대책을 묻고, 신덕함이 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도쟁계는 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일본에 납치된 뒤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한 울릉도·독도 영토 분쟁을 의미한다. 이후 안용복은 일본에 가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것'이라는 내용의 외교문서인 서계(書契)를 받아냈다.

독도전문가인 한아문화연구소 유미림 박사는 "글에서 언급된 문제가 구체적이라는 점을 볼 때 과거시험에 실제 출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덕함이 전시에 응시했을 때 나온 문제나 다른 응시자가 말한 문제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정황상 1696년 치러진 문과전시(文科殿試)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임금은 "울릉도가 멀리 동해에 있는데 강원도에 속해 있다. 수로가 멀고 험해 섬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현재 비어 있다. 요즘 일본인이 죽도(竹島)라 부르면서 백성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입장을 설명해도 (일본은) 들을 생각이 없다"면서 "혹자는 장수를 보내 점거해 지키자고 하고, 혹자는 혼란을 만들지 말고 일본인의 왕래를 허용하자고 하는데, 변방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방도를 강구해 자세히 나타내도록

하라"고 했다.

이에 신덕함은 "국내에서 대책 담당자를 잘 선정하고, 덕을 통해 일본 내에서 부당한 영토야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얻어가자"는 방법을 제시했다.

유 박사는 "울릉도쟁계 관련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등 관찬 사서에 남아 있고, 과거 시험에도 관련 문제가 나왔다. 당시 울릉도·독도 문제가 국가적 중대사였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이 고문서와 관련된 논문을 '독도연구소 영토해양연구'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 숙종 때 있었던 과거(科擧)시험에서도 독도 관련 문제가 중요시 돼 독도관련 사항이 과거시험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로 다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회는 경북 의성지역 선비였던 신덕함(申德函.1656-1730)이 남긴 문집에 있는 '전책(殿策)' 형식의 글에 울릉도와 독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 일 밝혔다.

전책은 임금이 묻고(策問), 자대부(子大夫:사대부)가 답(對策)하는 형식의 과거를 일컫는다.

이 전책 형식의 글은 1693 년 발생한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일본에 납치된 뒤 발생한 조선과 일본의 영토분쟁)에 대한 과거응시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실제로 전시에 출제됐다면 1696 년 치러진 문과전시(文科殿試)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임금의 책문 뒤에 '등(騰)'이라고 적힌 것은 문집을 남긴 신덕함이 전시에 응시했을 때 나온 문제를 베낀 것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져온 문제를 베꼈거나 예상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을 분석한 한아(韓亞)문화연구소 유미림 박사는 "울릉도쟁계 관련 기록이 실록 등 사서에 남아 있고, 과거시험에서도 독도가 거론된 것을 보면 당시 울릉도·독도 문제가 조선-일본 관계에 매우 중대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문집을 남긴 신덕함은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대책담당자를 잘 선정하고 덕을 통해 일본 내에서 부당한 영토야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얻어가자"는 심세득인(審勢得人)의 방법을 제시했다.

출처: https://lg1122.tistory.com/category/역사_바로알기?page=46 [이인곤 화순사랑]

의성현(義城縣)의 우씨열녀(禹氏烈女)에 대한 기록을 남긴 신덕함공(申德涵公)

강상문 (의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7세기 후반 경상도 의성현에 살았던 우소사(禹召史)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긴 분은 신덕함공이다.

아주신씨 세계(世系)에 의하면 16세(世) 신덕함공은 효종 7년(1656) 5월에父 신휴석(申休錫)공과母 풍산홍씨 사 이에 장남으로 의성현 금성면 수정리에서 태어나 영조 6년(1730) 75세의 나이로卒하였다.

본관은 아주이고 字는 중 유(仲游)이며 호는 농음(農瘡)이다. 공은 숙종 10년(1684) 28세 때 생진양시(生進兩試)에 모두 합격했으나 문과시험에는 계속 실패함으로써 결국 벼슬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좌절하여 스스로 호를 농음(農瘡)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문장력이 뛰어났음은 그의 친구들이 모두 인정하였다. 『禹烈女傳』을 보면 그가 중국고사, 시전(詩傳) 등에 매우 밝았으며 문장력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천성이 孝友하였으며, 17세에 부친상을 당하였으나 거상집례(居喪執禮)가 성인과 다름이 없었다. 어머니를 봉양함에 얼굴에 어그러짐이 없었고 나이 들어서도 끝내 해이한 빛이 없었다. 남양홍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2남(학모, 성모(學模, 聖模))을 두었다.

공의 가계는 조상 대대로 중앙과 지방에서 벼슬을 해왔으나 본인은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효자가 많이 배출된 집안임을 알 수 있다. 즉 5세(世) 申祐와 11세(世) 신원록(申元祿)의 경우는 효자로서 정려(旌閭)가 세워졌고, 부친 신휴석도 효자로 널리 알려졌다. 신씨 가문의 이러한 효행의식이 신덕함의 『禹烈女傳』 집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의성현 인물조를 보면 모두 54명(고려 13명, 조선 41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신덕함 가계의 인물로서 모두 10명이나 수록되어 있다. 申元祿(祐 후손), 申之梯(祐 후손), 申達道(元祿의 孫子), 申悅道(達道の 아우), 申弘望(之梯의 子), 申圭(達道の 子), 申適道(효자 元祿의 孫子), 申在(修撰 達道の 아들), 申瑠, 申濂(修撰 達道の 曾孫)이 그들이다.

그리고 효자조에 신원록, 신휴석이 실려 있다. 따라서 신덕함의 집안 인물이 읍지에 많이 등장함

으로써 의성현에서의 아주신씨의 영향력과 아울러 신덕함의 가문이 의성지방에서 명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작가 신덕함의 저술 동기를 살펴보면, 우씨 열녀가 태어나고 성장한 의성현 동촌 점지동(東村 店池洞)은 의성에서도 사대 부가 살지 않는 극동(極東) 골짜기였다. 이러한 궁벽한 시골마을에 견문도 없이 절효지용(節孝智勇)(절개, 효, 지혜, 용기)을 겸비한 우열녀의 행실은 옛 열녀보다 뛰어났으며, 하늘에서 타고난 열녀라고 크게 칭찬하였다. 그리하여 우열녀의 모든 행실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우열녀의 행적이 묻혀 사라지지 않도록 널리 미풍양속을 권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신씨 가문의 이러한 효행의식이 신덕함의 『禹烈女傳』 집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慶尙道邑誌』의성현 인물조를보면 모두 54명(고려13명, 조선 41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신덕함 가계의 인물로서 모두 10명이나 수록되어 있다.

申元祿(祐 후손), 申之梯(祐 후손), 申達道(元祿의 孫子), 申悅道(達道の 아우), 申弘望(之梯의子), 申圭(達道の子), 申適道(효자 元祿의 孫子), 申在(修撰 達道の 아들), 申瑠, 申濂(修撰 達道の 曾孫)이 그들이다. 그리고효자조에 신원록, 신휴석이 실려 있다. 따라서 신덕함의 집안인물이 읍지에 많이 등장함으로써 의성현에서의 아주신씨의 영향력과 아울러 신덕함의 가문이 의성지방에서 명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작가 신덕함의 저술 동기를 살펴보면, 우씨 열녀가 태어나고 성장한의성현 東村 店池洞은 의성에서도 사대부가 살지 않는 極東 골짜기였다. 이러한 궁벽한 시골마을에 견문도없이 節孝智勇(절개, 효, 지혜, 용기)을 겸비한 우열녀의 행실은 옛 열녀보다뛰어났으며, 하늘에서 타고난 열녀라고 크게 칭찬하였다. 그리하여우열녀의 모든 행실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우열녀의 행적이 묻혀 사라지지 않도록 널리 미풍양속을 권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禹烈女傳』은 숙종 20년(1694)에申德涵(1656~1730)에 의해 쓰여졌다. 『禹烈女傳』에는 우열녀의 출생과 성장배경, 결혼 초의 시집생활, 도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졸지에 과부가 된 과정, 군인이영발의 청혼과협박, 이웃부인의 개가 권유와 우열녀의 강한 수절 의지, 이영발의 집 마당에서의 자결 시도와 소생 등이 매우 생생하게 서술되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작자 申德涵은 우열녀가 궁벽한 시골마을에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견문도 없이 절개, 효, 지혜, 용기를 겸비한 행실은 옛 열녀보다 뛰어났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하여 우열녀의 행적이 묻혀 사라지지 않도록 우열녀의 모든 행실을 자세히 기록하였던 것이다.

우열녀의 삶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열녀의 이름은 말질진(未叱眞)으로 효종 8년(1657) 경상도 의성현 동촌 점지동(慶尙道義城縣 東村 店池洞)이라는 궁벽한 시골 마을에서 목수의 딸로 태어났다. 나이 21 세 때인 숙종 3년(1677)에안동인 김덕립(金德立)과 결혼하였다. 시부모님으로부터 우리 賢婦라는 칭찬을 받으며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숙종 9년(1683)어느 날 도적이 갑자기 들어와 남편이 도적의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열녀는 맨몸으로칼을 무릅쓰고 남편을 구하고자 했으나 같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남편은 죽고 혼자 살아남게 되자 굶어서 따라 죽고자 했다. 그러나 가족들의 만류로 죽지를 못하고 수절(守節)하게 되었다. 그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어머니와 뒷날을 기약하며 이별하고, 어린딸을 데리고 친가로 돌아와 품팔이 생활을 하며 늙고 병환중인 부친 莫卜을 봉양하였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인 李永發이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여 청혼하였다. 이웃부인이 달래어 개가를 권유했으나 우열녀는 죽어도 개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영발은 열녀의 승낙을 받지 못하자 가족과 친족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헐박하였다. 이에 부친 莫卜과 이웃사람들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우열녀는 청혼을 승낙하고 영발의 집으로 갔다. 영발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추상같은 꾸짖음과 이어서 영발이 차고 있던 칼로 자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소생하였다. 우열녀는 비록 자결함에 실패하였지만 죽음으로써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그 烈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절개와 용기를 겸비한 하층민 열녀

우열녀의 이름은 말질진(未叱眞)이다.

1657년(효종 8) 경상도의성현(義城縣) 동촌(東村) 점지동(店池洞)이라는궁벽한 시골마을에서 목수의 딸로 태어났다. 21 세 때 안동인 김덕립(金德立)과 혼인하였다. 시부모로부터 “우리현부(賢婦)”라는 칭찬을 받으며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살았다.

그런데 1683년(숙종 9) 어느 날 갑자기 침입한 도적의 칼에 남편이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때 우열녀는 맨몸으로 칼을 무릅쓰고 남편을 구하고자 했으나 같이 중상을 입었다. 그 후 남편이 죽자 밤낮으로 호곡하며 굶어서 따라 죽고자 했으나 가족들의 만류로 그러지 못하고 수절(守節)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어머니와 이별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친가로 돌아왔다. 친정에서는 품팔이 생활을 하며 늙고 병환 중인 아버지 막복(莫卜)을 봉양하였다.

우열녀는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도 노부(老父)와 계모를 잘 봉양한 효녀였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인편이 있으면 반드시 안부를 물었고, 문안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보내드렸다.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한 제사도 정성껏 지낸 효부였다.

그러던 중 홀아비 군인 이영발(李永發)이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여 청혼하였다. 이웃 부인도 개가(改嫁)를 권유했으나 우열녀는 “사람이금수(禽獸)와 다른 것은 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한 번 같이하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라며 죽어도 개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가가 문제되지 않는 하층민 신분임에도 투철했던 우열녀의 수절의지는 17세기 후반에 이미 양반층 여성의 열(烈)의 윤리가 서민층 여성에게까지 보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영발은 승낙을 받지 못하자 가족과 친족, 이웃까지 협박하였다. 아버지 막복과 이웃사람들은 곤경에 처하였다. 결국 우열녀는 청혼을 승낙하고 영발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추상 같은 구릿짐에 이어 영발이 차고 있던 칼로 자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소생하였다. 우열녀는 비록 자결에 실패하였지만 죽음으로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그 열행(烈行)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694년(숙종 20)에 ‘우열녀전(禹烈女傳)’을 지은 신덕함(申德涵·1656~1730)은 우열녀의 행실이 완비되었다고 크게 칭찬하였다. 우열녀가 궁벽한 시골마을에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건문도없이 절개, 효, 지혜, 용기를 겸비한 행실은 옛 열녀보다 뛰어났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열녀전’에는 출생과 성장 배경, 결혼 초의 시집 생활, 도적의 침입으로 남편이 죽고 졸지에 과부가 된 과정, 군인 이영발의 청혼과 협박, 결혼 독촉과 거짓말, 이웃부인의 개가 권유와 이에 대한 저항과 수절 의지, 이영발의 집 마당에서의 자결 시도와 소생 등이 매우 생생하게 서술되어 있다.

조선후기 신덕함(申德涵)은 경상도 의성현에 살았던 우소사(禹召史)에 대한 기록을 우열녀전(禹烈女傳)으로 남겼는데 내용은 이렇다.

우열녀의 이름은 말질진(未叱眞)이다.

효종때 의성현 동촌 점지동(店池洞)이라는 궁벽한 시골마을에서 목수의 딸로 태어났다.

21 세 때 안동인 김덕립(金德立)과 혼인하였다.

시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칭찬을 받으며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숙종 9년 어느 날 갑자기 침입한 도적의 칼에 남편이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때 우열녀는 맨몸으로 칼을 무릅쓰고 남편을 구하고자 했으나 같이 중상을 입었다.

그 후 남편이 죽자 밤낮으로 호곡하며 굶어서 따라 죽고자 했으나 가족들의 만류로 그러지 못하고 수절하게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어머니와 이별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친정에서는 품팔이 생활을 하며 늙고 병환 중인 아버지 막복(莫卜)을 봉양하였다.

우열녀는 어려운 생활한 경속에서도 노부와 계모를 잘 봉양한 효녀였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인편이 있으면 반드시 안부를 물었고, 문안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보내드렸다.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한제사도 정성껏 지낸 효부였다.

그러던 중 홀아비 군인 이영발(李永發)이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다가 더디어 청혼을 하였다.

이웃 부인도 개가를 권유했으나 우열녀는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한 번 같이하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 입니다"라며 죽어도 개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개가가 문제되지 않는 하층민신분임에도 투철했던 우열녀의 수절 의지는 17세기 후반에 이미 양반층 여성의 열녀 윤리가 서민층 여성에게까지 보급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영발은 승낙을 받지 못하자 가족과 친족, 이웃까지 협박을 하여 아버지 막복과 이웃사람들은 곤경에 처하였다.

결국 우열녀는 청혼을 승낙하고 이영발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추상같은 꾸짖음에 이어 이영발이 차고 있던 칼로 자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우열녀는 비록 자결에 실패하였지만 죽음으로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그 열행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